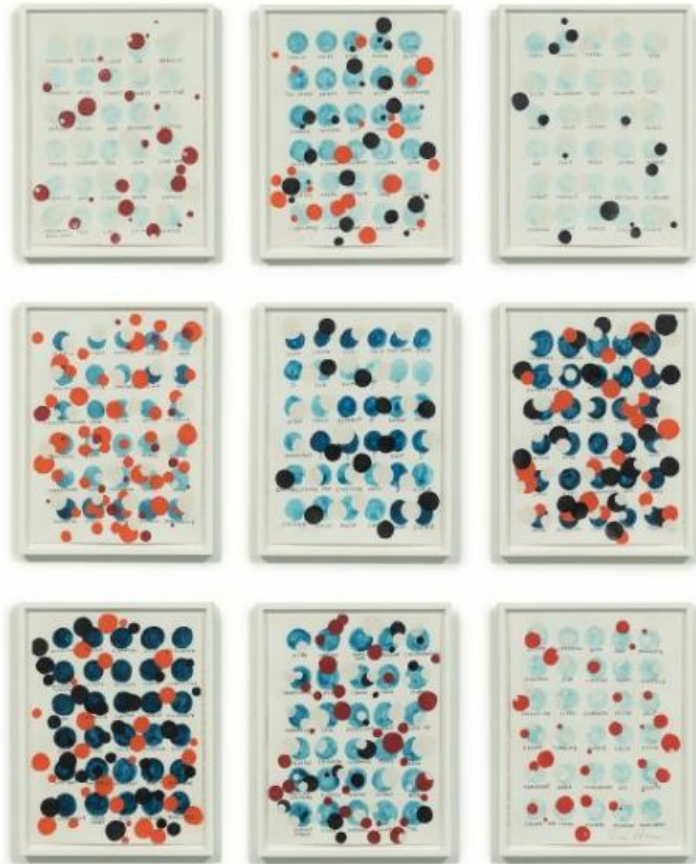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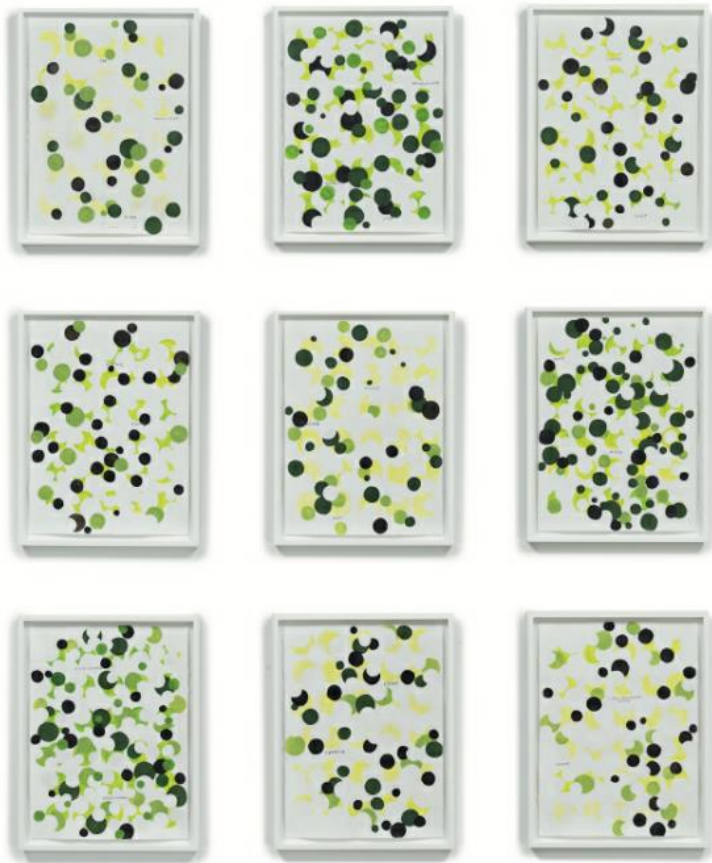
웰컴투코리아 로니 혼과 류이키 사카모토의 전시

June 6, 2018 | 김지선 에디터

page 1 of 3



'Remembered Words—(Sunflower)', 2012-2013, Watercolor, graphite, and gum arabic on paper, 38.1×27.9cm, Photo by Tom Powel Imaging,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Remembered Words—(Fat)', 2012-2013, Gouache, watercolor, graphite, and gum arabic on paper, 38.1×27.9cm, Photo by Genevieve Hanson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로니 혼의 언어

어느 도시의 어느 장소에 있어도(심지어 복잡한 아트 페어 한복판에서도), 한 뼘 크기의 사유의 공간을 선사하는 로니 혼의 작품이 서울에 온다. 국제갤러리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로니 혼의 개인전은 드로잉으로 꾸러졌다. 드로잉은 로니 혼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언어와 정체성을 고찰하는 중요한 장이다. <Remembered Words>에는 단어의 의미와 기억 간의 미묘한 관계를 실험하는 아홉 점의 드로잉 작품이 전시된다. 고유의 언어로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유를 펼쳐나가는 로니 혼이 마련한 ‘단어 게임’을 즐겨보길. 이번에 전시되는 드로잉들이 로니 혼의 다른 주요 작품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여다보고, 의식의 흐름을 이어가보는 것도 흥미로운 놀이다.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디터/ 김지선